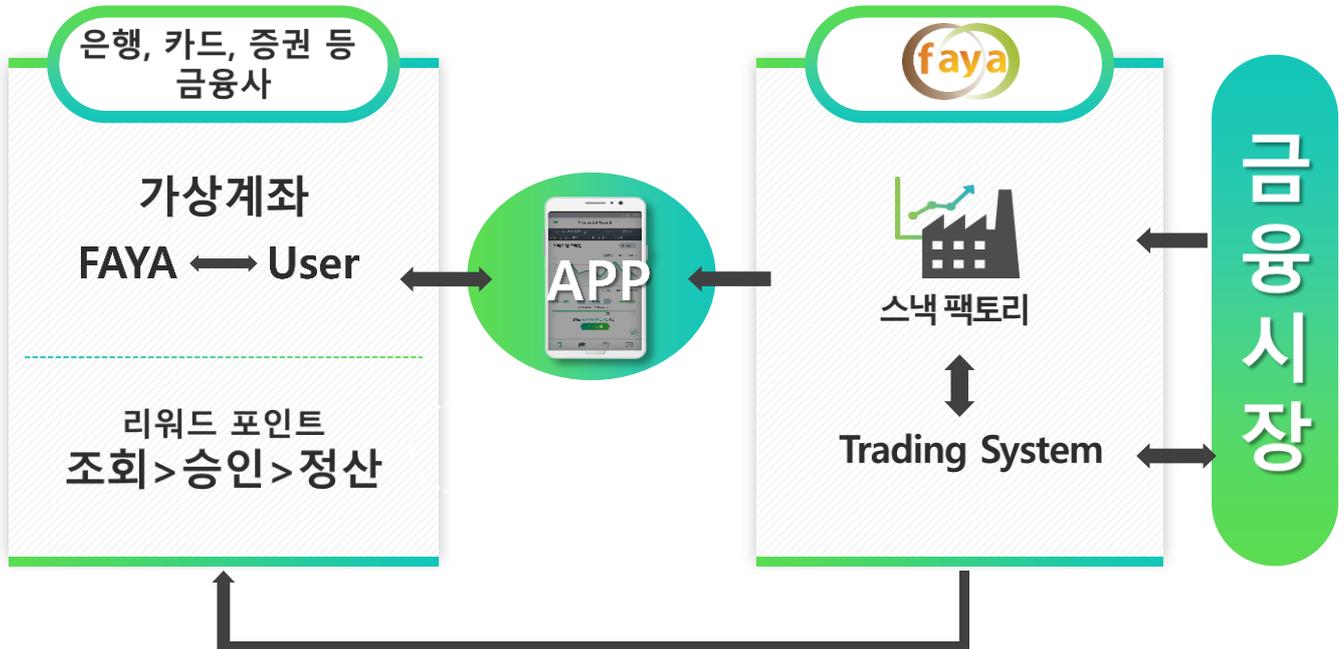




천원으로 시작하는 투자체험  
파이낸셜 스낵 Do Eat Try it!



(주)파야(대표 정명수)는 소액의 신용카드 및 리워드 포인트로 금융 투자를 체험할 수 있는 마이크로 인베스트먼트(Micro Investment) 플랫폼을 구축했다. 서비스 이름은 ‘파이낸셜 스낵’(이하 스낵).

신용카드 포인트는 연간 2조원이 적립되며, 이중 1,300억원은 사용자도 모르게 소멸된다. 1인당 평균 적립 포인트는 2만원(포인트) 수준. 이를 재원으로 ‘소액 반복 투자 체험’을 함으로써 금융시장 및 투자의 메커니즘을 체험하고 이해하도록 돕는다.

(주)파야는 주식, 채권, 외환, 상품 등의 가격 패턴(스낵)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 해당 패턴의 확률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그 패턴(스낵)의 발생 빈도, 성공률을 보고, “이번에도 이 스낵이 성공할까요?”라는 질문에 스스로 숫자를 입력해 답한다.

확신의 정도에 따라 100부터 0까지 임의의 숫자를 넣고, 결과에 따라 포인트로 보상을 받는다.

스낵은 모의 투자나 투자 게임과 달리, 자기 소유의 포인트를 재원으로 하고, 포인트 자체가 증식하는 실질적 투자 체험을 제공한다. 금융 투자의 기본이 되는 확률적 사고와 행동을 반복적으로 경험, 실제 금융 투자 시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하게 한다.

스낵 거래 기록은 사용자의 투자 성향을 반영하며, 이는 금융사들이 신규 고객을 유치할 때 활용된다. 궁극적으로 고객의 투자 성향을 진단하는 한국형 KYC(Know Your Customer)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